
국가정원 관련 해외출장 보고서

2017. 8

제주연구원

I. 출장개요

○ 목 적 :

- 제주에서는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제주연구원에 위탁함
- 기본 구상을 위한 대나무 및 정원 관련 답사 및 자료 수집
 - 제주지역은 연 평균 강수량이 2000mm이상이고, 난대기후지역으로 대나무 생육에 최적지임
- 세계 정원 구성시 중국 정원 추가 자료 수집
 - 중국 4대 정원 답사를 통한 세계 정원 구성시 중국 정원 이미지 추가 자료 수집

○ 기 간 : 2017년 7월 31일 ~ 8월 4일(4박 5일)

○ 대상국가 및 지역 : 중국 절강성 안길현 및 소주시

○ 여행자 인적사항 : 강진영, 정지형(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), 조정호
자문위원

○ 주요일정

월 일 (요일)	출발지	도착지	방문 기관	업무수행내용	접촉인물 (직책포함)
7월 31일 (월요일)	제주	절강성 안길현	(이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주 출발 → 상해 도착 • 상해 출발 → 안길현 도착 	
8월 1일 (화요일)		절강성 안길현	대나무박물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나무박물관 관람 및 박물관장 참석 회의 	- 周昌平 經理 외 임업국 직원
8월 2일 (수요일)		절강성 안길현	대죽해(大竹海) 답사 및 안길현 대나무 공장 방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죽해(大竹海) 관람 • 안길현 대나무 자동화기계 공장 방문 	- 周昌平 經理 외 임업국 직원
		항주	(이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길현 출발 → 항주 도착 	
8월 3일 (목요일)			(이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주 출정원 답사 	
			(이동)	상해 도착	
8월 4일 (금요일)	상해	제주	(이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해출발 → 제주 도착 	

II. 출장내용

1) 대나무 박물관 답사 및 회의

(1) 회의 내용

○ 개요

- 일 시 : 2017. 8. 1.(화) 10:00~12:00
- 장 소 : 중국 절강성 안길현 대나무박물관 2층 회의실
- 참여자 : zhou chang ping 관장, 강진영 책임연구원, 정지형 책임연구원, 윤은주 풍경이엔지 대표, 조정호 죽림원 대표 외 3명



<연구진 소개>



<각 기관(제주)의 연구방향 설명>

<그림 1> 제주연구원 참여연구진 실무진 회의

○ 주요내용

- 제주국가정원 및 기본 구상도 설명
- 대나무박물관 개요 설명
- 대나무박물관 주요 시설 답사
- 제주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대나무 국가간 또는 지방간 반입시 협조 및 유의 사항 논의

(2) 대나무박물관 답사

○ 개요

- 일 시 : 2017. 8. 1.(화) 14:00~16:30
- 장 소 : 중국 절강성 안길현(浙江省湖州市安吉縣地鋪鎮城南社區)



- 참여자 : zhou chang ping 관장, 강진영 책임연구원, 정지형 책임연구원, 윤은주 풍경이엔지 대표, 조정호 죽림원 대표 외 3명

○ 주요내용

- 안길현은 '장삼각' 경제구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, 중국의 '죽향 (대나무 고향)'으로 불리고 있음
- 대나무박물관은 풍부한 대나무 종류와 자원, 유구한 대나무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, 중국 유일의 대나무 전문 박물관임
- 안길현에는 현재 토종 대나무 50여종, 대나무 숲 면적은 6만 8,000천 헥타르에 달하고 있음
- 박물관의 총 면적은 12,000 평방미터, 건축면적은 3,200평방미터임
- 대나무 박물관은 1996년 10월 조성되었으며 2000년 10월 정식 개관하여, 2001년 안길대나무박람원유한책임공사로 설립되었음
- 2002년 대나무박물관은 국가평가에 따라 호주(湖州)시의 첫 AAAA급 국가풍경구를 획득하였음
- 2005년 제4차 건설 공정에 의거하여 2,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부분 시설 수리, 유람차 증설, 여행센터 등 관광시설을 증설하였음
- 중국 대나무박물관은 역사 전람 및 장식관과 생태 대나무종 관광구로 나누어짐
 - 역사 전람실은 7개로 나누어지며, 생태종 관광구에는 현재 396여종의 대나무가 있음
- 중국 공산당과 국가 지도부 인사, 임업부, 국가과학위원회, 절강성

등 지도부 인사들은 정기적으로 대나무박물관 시찰을 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대나무박물관 발전의 지지를 하고 있음

- 대나무 박물관의 특징으로 서호(西湖)의 죽해(竹海, 대나무바다)의 핵심 풍경구로써 국가 AAAA급 관광풍경구 획득, 전국 과학보급 교육기지, 전국 최초 현금 팬더곰 등록지 등이 있음
- 2004년 4월 21일 전라남도 담양군과 안길현이 우호도시 체결을 하여 상호 교류를 진행하였음
- 대나무박물관에는 중국에서 특별관리대상인 팬더곰을 사육하고 있으며, 이를 관광객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
- 대나무박물관에는 생태종 관광구에 많은 대나무 뿐만 아니라 신기한 대나무 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또한, 대나무박물관에는 대나무로 만든 공예품을 비롯하여 대나무를 사용하여 만드는 음식의 종류도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음



대나무박물관 소개도



담양군 MOU 체결비



대나무박물관 명물 팬더 모형



대나무 박물관 입구



대나무박물관 내부 전시물

<그림 2> 대나무 박물관 답사

2) 대죽해(大竹海) 답사 및 안길현 대나무 공장 방문

(1) 대죽해 답사

○ 개요

- 일 시 : 2017. 8. 2.(수) 09:00~11:00
- 장 소 : 중국 절강성 안길현(湖州市安吉縣天荒坪鎮五鶴村)



- 참여자 : 章宏波 대나무박물관, 강진영 책임연구원, 정지형 책임연구원, 윤은주 풍경이엔지 대표, 조정호 죽림원 대표 외 3명

○ 주요내용

- 중국 대죽해는 안길현에 위치하고 있으며 666.7만 평방미터 면적의 대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음
- 대죽해의 '모죽(毛竹)'은 성정부 임업청 모죽 시범기지, 아시아, 아프리카 17개 국가의 과학양성기지임
- 대죽해의 삼림율은 96% 이상이며, 관할구역내 삼림은 53,590묘¹⁾(畝), 그 중 모죽림(毛竹林)은 45,455묘로써 전체 삼림의 84.8%를 차지하고 있음
- 대죽해 모죽은 평균 둘레 12촌, 높이 12m, 평균 매 묘(畝)마다 약 280그루가 자라고 있음
- 대죽해의 인근에는 국가 AAAA급 지정 강남천지(江南天池) 풍경구가 위치하고 있음
- 강남천지 풍경구는 안길현의 天荒坪에 위치하고 있으며, 특히 아

1) 중국식 토지면적 단위, 약 666.7 제곱미터, 약 200평

- 시아 제일, 세계 두 번째 에너지저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음
- 강남천지는 대죽해 관광코스과 함께 절강성 유일의 겨울 온천과 겨울 스키를 탈 수 있는 관광지임



대죽해



강남천지

<그림 3> 대죽해

(2) 대나무 공장 방문

○ 개요

- 일 시 : 2017. 8. 2.(수) 13:00~15:00
- 장 소 : 중국 절강성 浙江永裕竹業股份有限公司
- 참여자 : zhou chang ping 관장, 강진영 책임연구원, 정지형 책임연구원, 윤은주 풍경이엔지 대표, 조정호 죽림원 대표 외 3명

○ 주요내용

- Yong Yu(永裕) 유한공사는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, 대나무 마루, 가구, 장식품 및 기타 대나무제품을 생산하는 국가급 하이테크 기술기업임
- Yong Yu(永裕) 유한공사는 절강성, 복건성, 운남성 등지에서 자원기지 설립을 통해 자재, 가구, 장식품을 핵심기술 사업으로 하고

있음

- 현재 1천여명의 직원과 200여명의 전문기술인력을 통해 연간 350만 평방미터의 대나무 지반과 20만개의 고급 대나무 가구를 생산하고 있음
- 현재 대나무 전문기업으로써 연간 판매량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, 현재 절강성 임업중점기업, 절강성 농업중점기업임
- 또한 제품 질과 기술 능력 제고를 위해 대나무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음



<그림 4> yongyu 유한공사 및 대나무제품 전시장

3) 졸정원(拙政園) 답사

○ 개요

- 일 시 : 2017. 8. 3.(목) 11:00~15:00

- 장 소 : 중국 절강성 소주시(江苏省苏州市市辖区东北街步行街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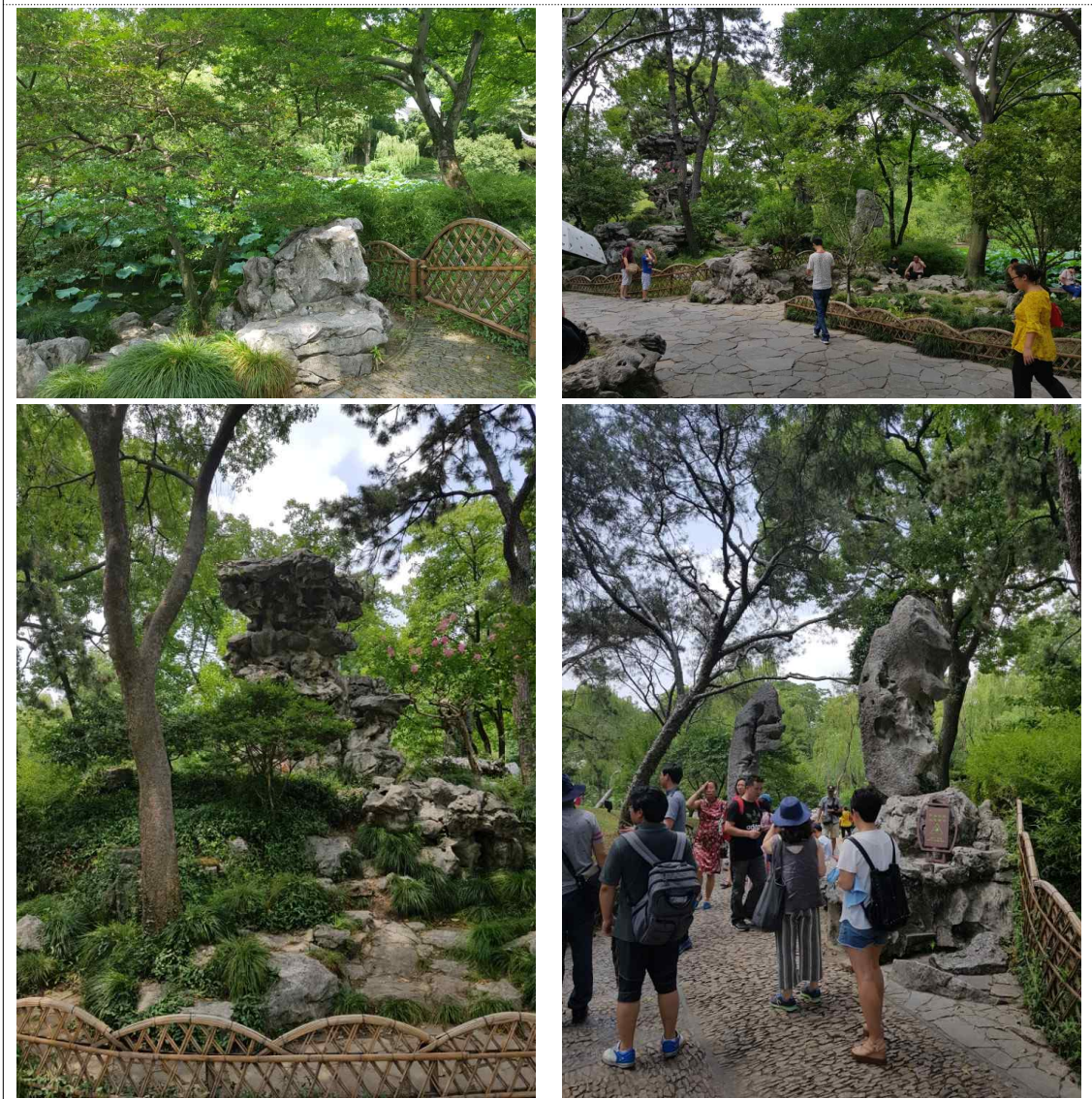
- 참여자 : zhou chang ping 관장, 강진영 책임연구원, 정지형 책임연구원, 윤은주 풍경이엔지 대표, 조정호 죽림원 대표 외 3명

○ 주요내용

- 졸정원은 명대 건설된 소주 최대의 정원으로 베이징의 이화원(颐和园), 청더의 피서 산장(避暑山庄), 소주의 유원(留园)과 함께 중국의 4대 명원으로 꼽히고 있으며,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어 있음
- 총면적은 5만 1950㎡에 이르며 정원의 컨셉은 물을 중심으로 하여, 강남지방 수상마을 특색을 매우 잘 묘사하고 있는 정원임
- 동원(東園), 중원(中園), 서원(西園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지의 절반 이상이 연못과 수로로 구성되어 있음
- 졸정원은 1961년 중국 정부에 의해 중점문물보호지로 지정되었고, 1997년에는 소주원림(蘇州園林)에 포함되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음
- 2007년 국가 66개 5A급 관광지(旅游景区)의 하나로 지정되었음
- 졸정원은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온 개인정원으로 고대 강남지방 관료들이 거주하던 주택의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음



졸정원 입구



졸정원 내부 사진

<그림 5> 졸정원(拙政园)

Ⅲ. 시사점

- 제주국가정원 조성시 대나무는 단순한 정원소재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시킬 필요가 있음
 - 안길현 대나무박물관은 박물관뿐만 아니라 생태관(숲)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일조하고 있음
 - 그러나 단순 관광객의 유치뿐만 아니라 대나무를 소재로 한 음식을 전시하고 있고, 실제 식당가에서도 많은 음식이 대나무를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
 - 또한, 대나무 공장 및 공예점 그리고 상가를 방문시 많은 종류의 대나무 가구 및 공예품 등이 전시되어 있었음
 - 더욱이 가구나 공예품의 경우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
 - 예를 들어 식탁 테이블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
- 제주국가정원 조성시 외국에서 반입시킬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목적에 맞게 반입시킬 필요가 있음
 - 대나무는 크게 식용, 관목, 가공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, 지역 경제와 연계시 정원에 필요한 수종뿐만 아니라 식용용 또는 가공용을 동시에 반입시킬 필요가 있음
 - 이를 위해서는 가공용과 식용의 경우 일단 제주국가정원에서 재배하고 필요로 하는 또는 사업의 의지가 있는 수요자를 택하여 보급시킬 필요가 있음
- 제주국가정원 조성시 외국에서 반입되는 절차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음

- 외국의 식물을 반입시키는 경우 식물검역소를 통하여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고, 이를 위한 오랜 절차(많은 기간)와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남
- 이러한 오랜 절차와 많은 비용은 제주국가정원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- 예를 들어, 특별법을 통한 절차의 간소화나 아니면 담양에서 이루어진 특별 경우를 활용하여 절차와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
- 제주국가정원 조성시 중국 안길현 대나무박물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
 - 제주국가정원 조성시 대나무를 하나의 테마로 선정하게 된다면, 가장 많은 수종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안길현 대나무박물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대나무를 반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 - 이를 위해서는 중국 안길현 대나무박물관과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음
 - MOU체결에 있어서는 안길현이 중국내에서 차지하는 위상 고려시 제주특별자치도차원보다는 현재 제주국가정원 행정구역이 서귀포시 일원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와 중국 안길현 사이에 MOU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
- 제주국가정원 조성시 정적인 부분(힐링숲, 습지, 정자 등)만을 강조하고 동적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됨
 - 정원이라는 자체가 편안함을 제고하기도 하지만 유희를 제고하기도 하여야 함
 - 그러한 차원에서 대나무박물관은 대나무를 먹는 팬더곰을 사육하고 이러한 팬더곰을 소재로 캐릭터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
 - 성인에게는 편안함을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는 유희를 줄 수 있는 동적인 분야가 포함된 기본 구상이 필요함